

돌아선 '키맨'... 한미약품 송영숙·임주현 모녀 손 잡았다

경영권 분쟁 새 국면

개인최대주주 한양정밀 신동국 송영숙·임주현 모녀에 지분 매수 사이언스 지분 6.5% 444만 여주 송 회장 관계자 지분 48.19% 공시 상속세 마련, 이슈도 해소 될 듯 임종윤·종훈 형제 '경영권' 위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고,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형제 경영'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 보였던 한미약품그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을 지지했던 '키맨'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으로 돌아선 것이다.

4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주식매매계약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로 444만 4187주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각각 신 회장 12.43%, 송 회장 11.93%, 임 부회장 10.43%다.

이번 주식매매계약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신 회장 18.92%, 송 회장 6.16%, 임 부회장 9.70%로 변동될 전망이다. 신 회장이 송 회장으로부터 394만 4187주, 임 부회장으로부터 50만 주를 취득하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거래종결일은 오는 9월 3일이다.

이번 거래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했고,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식 가치 평가를 방해했던 '오버행 이슈'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사이언스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송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35.76%에서 48.19%로 변경됐음을 공시했다.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 체결에 따라,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합산 지분에 신 회장의 지분이 더해져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약 35%에 달한다. 이밖에 친인척과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 우호 지분까지 확보한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지분율은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에 비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각각 12.46%, 9.15%다.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이사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그룹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의 경우, 지난 6월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목표했던 한미약품 대표이사에는 오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은 그동안 임종윤·종훈 형제 측을 공개 지지하며 승패를 갈랐다. 신 회장이 이번에는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손을 잡아 97일 만에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향방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신 회장은 송 회장과 함께 '한국형 선진 경영 체제'를 통해 한미약품그룹이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그룹은 한국형 선진 경영 체제는 그룹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창업자 가족 등 대주주와 전문 경영인이 상호 보완해 나가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기존 오너가 중심의 경영 체제를 쇠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해 경영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는 사외이사와 참여형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 경영을 지원하고 감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진을 새롭게 구성해 임종윤·종훈 형제 측으로부터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후보들이 모두 이사회 진입에 성공, 형제 측은 모녀 측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 차례 승리했다.

이후 한미사이언스는 가족간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뉴 한미'를 경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송영숙·임종훈 공동 대표이사 체제가 임종훈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급변하는 등 갈등 봉합은 어려움을 겪었다.

롯데면세점, 日서 캐릭터 전문매장 오픈

동경긴자점에 '긴자프렌즈' 벨리콤 등 3000여 상품 준비

롯데면세점이 동경긴자점에 '긴자프렌즈' 캐릭터샵을 오픈하며 글로벌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지난 3일 롯데면세점은 일본 동경긴자점 8층 1차 재단장을 마치고 캐릭터 전문 매장 '긴자프렌즈'를 열었다. 엔데믹 이후 동경긴자점을 방문하는 고객군 및 이들의 쇼핑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브랜드 라인업을 개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 동경긴자점 긴자프렌즈 매장은 총 154평(509㎡) 규모로 조성됐으며, 3000여 상품을 준비했다. 먼저, 롯데그룹 콘텐츠 사업의 핵심 캐릭터인 '벨리콤'이 긴자프렌즈를 통해 일본 면세채널에 처음으로 진출해 해외판로 개척에 나섰다.

이어 국내 토종 브랜드인 잔망루피와 무직타이거, 폴리, 젤리크루 등과 협업해 일본 현지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IP를 론칭했다. 대표적으



롯데면세점 동경긴자점 직원들이 '긴자프렌즈' 캐릭터샵으로 탈바꿈한 매장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로 과쿨이, 놀자곰, 망상리토끼들, 영이의숲이 입점했다. 나아가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원피스, 귀멸의칼날, 나루토, 포켓몬, 산리오캐릭터즈 등도 마련했다.

롯데면세점은 기존 부티크와 시계 등 중고가 브랜드들로 구성된 구역을 캐릭터 완구와 액세서리 등이 즐비한 친숙한 매장으로 꾸몄다. 코로나19 이전 높은 구매

력을 자랑했던 중국 단체관광객 선호도에 초점을 맞췄던 상품구성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다국적 고객 그리고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콘셉트로 확장했다.

안대현 롯데면세점 글로벌사업부장은 "8년 만에 재단장한 롯데면세점 동경긴자점에 많은 고객이 방문해 즐거운 쇼핑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골든블루 '하이볼 믹스셋' 콘텐츠 공개

'DJ 스프레이' 플레이리스트 소개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골든블루는 '골든 하이볼 믹스셋' 시리즈의 첫 번째 콘텐츠를 골든블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골든 하이볼 믹스셋 시리즈는 K-하이볼의 대표 주자인 '골든 하이볼'을 즐기는 공간과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국내 최정상급 디제이들이 직접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자는 화려한 테

크닉을 자랑하는 'DJ 스프레이'다. DJ 스프레이는 90년대 음악부터 현대적 비트까지 고루 활용하는 아티스트로 트렌디한 젊은 감성과 함께 골든 하이볼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일 공개된 DJ 스프레이 콘텐츠 티저 영상은 바이닐(LP)을 활용한 디제이 장면을 통해 소비자들의 공감을 자극시키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본편 영상은 금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며 골든블루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

100년 역사·노하우 담은 30도 소주

하이트진로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최고급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 100주년 에디션(이하 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사진)'을 17일 출시하고 한정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은 하이트진로의 100년 역사와 양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수 30도의 최고급 증류식 소주다.

최고급 임금납표 이천살만을 사용해 3차례 증류한 최고 순도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의 원액과 '일품진로 23년' 묵통숙성원액을 블렌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목넘김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스트레이트, 온타락 등 다양한 음용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맛을 누



길 수 있다.

제품 패키지는 일품진로 고연산의 시그니처인 블랙 사각병과 골드 왕관을 유지하면서 자개 디자인을 적용해 전통미와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이번 '일품진로 100주년 에디션'은 창립년도를 기념해 1만9240병만 생산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전국 가정 채널 및 고급 식당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베트남 하노이센터점 리뉴얼

'넘버원 그로서리 마켓'으로 오픈

롯데마트가 4일 하노이센터점을 리뉴얼 오픈하고 베트남의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할 '넘버원 그로서리 마켓'에 도전한다.

2014년 9월에 오픈한 롯데마트 하노이센터점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시 바

딘 지역 '롯데 하노이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하노이센터점 인근에는 국제 학교 및 대학교가 위치해 외국인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한

하노이센터점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넘버원 그로서리 마켓'으로 도약하기 위해 식료품 매장 면적을 기존 대비 20% 이상 확대한 '그로서리 전문 매장'으로 하노이센터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한국에서 롯데마트가 쌓아온 유통 노하우가 담긴 '그로서리 전문 매장'이라는 틀 아래 현지 쇼핑 문화를 접목하여 베트남의 차세대 식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다.

/최빛나 기자